논어 13편 자로 13장 · 원문·풀이

# 子曰：「苟正其身矣，於從政乎何有？不能正其身，如正人何？」

독음 · 자왈 구정기신의 어종정호하유 불능정기신 여정인하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신을 바로잡으면 정치가 어렵지 않다. 자신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바로잡겠는가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苟 진실로 구 구 / 正 바를 정 정

其 그 기 / 身 몸 신 신 / 矣 어조사 의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

從 좇을 종 종 / 政 정사 정 정 / 乎 어조사 호 / 何 어찌 하 하

有 있을 유 / 不 아닐 불 / 能 능할 능 능 / 如 같을 여 여

人 사람 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